

구례 전지훈련 열기 ‘후끈’...올 3만명 유치 목표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지난 10일부터, 광주대 축구팀 22일부터 내년 1월부터 전후·대회 잇따라...지역경제 파급효과 26억원 기대

구례군이 이달부터 국내 주요 스포츠팀들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활기를 띠며 새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열기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4일간 체력강화와 전술훈련을 진행 중이며, 광주대 축구팀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2일간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이 지난 10일부터 14일간 구례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전지훈련에 참가한 관계자는 “우수한 체육시설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구례군은 최적의 훈련지”라며 “매년 믿고 찾는 곳”이라고 말했다.

12월을 시작으로 2026년 1월부터는 초·중등부 축구 스토티그를 비롯해 씨름,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과 대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학교팀부터 실업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선수단이 구례를 찾으며 지역은 한층 더 활기를 띠 전망이다.

올해 구례군을 방문한 전지훈련 선수단은 약 3만명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와 음식점,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늘어나며 약 27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구례군은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에서 ‘노력상’을 수상하며, 전국 대표 전지훈련 명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026년 전남제천 개최를 앞두고 체육시설 확충과 개보수를 추진해 전지훈련 여건을 강화하고, 축구 종목을 중심으로 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겠다”라며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례군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 석곡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 봉사

취약가구 청소·수리 서비스

곡성 석곡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 12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석곡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청소·수리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봉사조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활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가구와 외국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취약계층 가구에는 집 주변을 뒤덮고 있던 나무를 집중적으로 걷어내고, 사용이 어렵고 위험 요인이 있던 외부 화장실을 철거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정리해 쾌적한 생

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편안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마당 사용이 한결 편리해졌다.

외국인 가구에는 장기간 쌓인 외부 폐기물의 분류·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창문과 출입문 등에 단열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겨울철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주변 환경도 정돈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석곡면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고흥군 특산물 김 활용 로컬푸드 시제품 2종 개발 출시

동결건조 공법 김 된장국·김스낵

고흥군이 지족도·죽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양어조작과 주민, 지역 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산물인 김을 활용한 로컬푸드 시제품 2종(동결건조 김 된장국, 김스낵)을 개발했다.

이번 시제품 중 동결건조 김 된장국은 고흥군 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담우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김스낵은 여수시 사회적기업 (주)쿠키아와 협력해 완성했다.

지족도·죽도에서 생산되는 김은 청정 해역에서 자라 품질이 우수하나 그간 원물 중심의 유통이 대부분을 차지해 활용도와 소비 확장성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양어조작은 2024년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제품 아이템을 선정하고, 2025년에는 두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김을 가공한 시제품을 개발했다.

동결건조 공법을 적용한 고흥 김 된장국은 따뜻



고흥군이 개발한 시제품 ‘김 된장국’.

한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 형태로 제작돼 보관성과 휴대성을 높였다. 김스낵은 지역 김의 풍미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

으로, 향후 로컬푸드 제품군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담우와 ㈜쿠키아는 이번 시제품 개발을 계기로 지역 자원의 고도화와 로컬푸드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결건조 김 된장국은 2026년 1월, 고흥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취도·금사항 양어조작이 운영하는 ‘제1회 해장만 고흥 굴 축제’에서 시식회를 통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주민과 방문객의 의견을 반영해 제품을 단계적으로 개선·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해양개발과 관계자는 “지족도·죽도 지역 김은 이미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나 가공·유통 분야에서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시제품 개발은 고흥 김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법정 스님 자취 따라 무소유길 걷고 사유의 시간

순천시 인문 체험 프로그램

20일부터 이틀간 송광사 불일암

순천시가 법정스님의 삶과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인문 체험 프로그램 ‘법정스님의 자취를 걷다, 듣다’를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송광사 불일암 일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정스님의 수행 터전이었던 불일암에서 진행되는 시민 참여형 인문 프로그램으로, 총 2회(회당 25명) 운영하며 총 50여 명

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전화(061-749-4534) 또는 QR코드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법정스님 뱀배웅 의자’와 함께 소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법정스님 뱀배웅 의자’는 법정스님이 수행과 사유의 시간을 보냈던 상징적 공간을 보여주는 유산으로, 스님의 소박한 삶과 무소유 정신을 대표하는 문화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 바 있다.

프로그램은 ▲법정스님의 수행 여정을 따라

걷는 ‘무소유길 걷기’ ▲스님의 삶과 사상에 대한 인문학 강의 ‘불일암 숲속 인문학’ ▲교묘 속에서 차와 함께하는 명상 및 성찰의 시간을 갖는 ‘침묵과 차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법정스님 뱀배웅 의자’와 함께 법정스님의 정신을 공감하고 성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시민 중심의 인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광양시 국제협력사업

전국 지방외교 장려상

광양시가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2025 전국 지방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본선에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진〉

‘전국 지방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정책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광양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부천시·안산시·평택시 6개 지자체가 본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본선 발표자로 나선 정현욱 광양시 철강항만과 국제협력팀장은 “행정·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 기반 국제교류 모델”을 중심으로 광양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의 추진 체계와 성과를 설명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안정적 운영 구조를 강조했다.



광양시 모델은 지속성·구조성·확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행정·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 기반 국제교류 체계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와 비교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모범적인 지방외교 사례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의미가 크다.

광양시는 2004년부터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행정과

학교가 협업하는 구조적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에서 유일한 협업체형 국제교류 모델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시는 교통비·항공료·통역료 등을 일부 지원해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고, 시민이 직접 통역관으로 참여하는 ‘광양시 명예통역관 제도’를 운영해 언어 장벽 없는 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외교 기반을 공고히 해 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우수웰니스 관광지 3회 연속 선정

환경성질환센터 프로그램 호평

보성군이 직영하는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우수웰니스 관광지’에 3회 연속 선정되며, 환경성질환 예방과 치유형 웰니스 관광의 대표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올해 11월 말 기준 상담·교육, 건강증진 체험, 신체활동 및 친환경 프로그램을 총 474회 운영해 7528명이 참여했으며, 전년 대비 이용객 수는 약 1500명 증가하고, 운영 수입은 약 1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센터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한 달간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축제(페스타)’에 참여했으며, 보성 녹차를 활용한 ‘오란다차’와 ‘손에 머무는 차향’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황토·맥반석 찜질방, 산소방, 녹차방, 치유명상실, 야외 족욕 시설 등 다양한 치유 인프라를 갖춘 복합 웰니스 공간으로, 이를 활용해 기초 건강검진,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1:1 맞춤 상담, 건강 증진 체험, 교육·교육 전문 직원 대상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내달 개원

예율병원 내...산모실 15개 등 갖춰

여수시가 지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웅천동 예율병원 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을 내년 1월 개원한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예율병원)은 산모실 15개실과 신생아실을 비롯해 ▲산모교육실 ▲피부관리실 등 다양한 편의 공간을 갖추고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와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수시는 2023년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용자 예약 편의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전남아이톡’과 연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예율병원(061-655-3535, 내선 6)을 통해 병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화 예약과 상담을 진행한다. 전화 예약은 지난 12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예약 대상은 임신 28주 이상 임신부로, 이용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을 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전경.

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감염 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70%를 감염반을 수 있어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산모들이 겪어온 원정 산후조리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 친화적인 도시 여수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채널본부장 chkim@